

“발달장애 가족 극단 선택하기 전에 사회가 도와달라”

장애인부모연대, 母子 사망 사건 관련 호소문

오늘 추모제 갖고 이용섭 광주시장 면담 계획

“함께 죽은 아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그 엄마 마음 이해합니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발달장애인 모자(母子) 사망 사건 관련해 10일 호소문을 냈다. 호소문은 지적장애 1급, 2급 판정을 받은 동생을 둔 한 50대 여성의 힘겨운 삶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

한 사회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호소문은 “동반자살이네, 뉘네 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머니가 데리고 가버렸으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백 번, 천 번, 만 번 그 어머니 마음 알겠더라”는 탄식으로 시작했다. 이어 “동생들 밥 안 굶기려고 트럭에 태워 일하는 곳까지 데려가 차안

에만 앉혀놔더니 소리 지르고 난리더라”며 “그래도 옆에 두니 세끼 밥은 안 굶겠다”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이 여성은 “동생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수급비를 빼고 한 달에 150만 원이 더 들어간다”며 “최근에는 일도 없어 간병비도 두달이나 밀렸다”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 그런가 보다 하고 2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기력도 없어서 더이상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다”며 “우리 식구도 이리다가 죽게 생겼다”며 호소했다. 이어 “지난 3일 숨진 모자처럼 질

기게 옮겨주고 있던 목숨줄 놓게 생겼다”며 “우리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이 모자와 같은 선택을 하기 전에 살 궁리를 찾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11일 오전 11시30분 광주시청 앞에서 추모제를 열고 발달장애인 모자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한 자전거도로변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50대 여성과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2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추모제를 마친 뒤 이용섭 광주시장과 면담을 신청,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긴급 정책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개발과 돌봄, 자립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문관 채용 △다중지원(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 모델 시행 △발달장애인거점 병원 및 행동발달증진 센터 설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예산 확대 △장애인 가족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오유나 기자

“시각장애인들에 천연기념물 소개할 목소리 기부자 찾아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천연기념물(동물) 소개용 점자감각책 내

레이션에 참여할 목소리 기부자(빛을 만드는 사람들) 50명을 11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목소리 기부자들이 참여할 책은 ‘천연기념물 동물 입체형 멀티미디어 점자감각책’으로, 천연기념물 동물에 대한 일러스트와 스토리텔링 내레이션, 음원(동요, 민요) 등 시각장애인고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로 채워져 있다. 내레이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 게시돼 있는 스토리텔링 예시를 직접 읽어 녹음한 다음 음성파일을 참가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flehsoul@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50명의 목소리는 10월 완성되는 입체형 멀티미디어 점자감각책과 모바일 소리책(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에 삽입돼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쓰이게 된다.



지난 9일 강진군 군동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군동면과 강진군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간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과 홀몸 어르신 건강한 밥상 나눔 사업 간담회가 개최됐다.

강진 군동면, 강진군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업무협약

장흥군, 가족사진 촬영 ‘세심한 복지’ 추진

가족사진 없는 저소득층 아동 18가구 선정하여 촬영 지원

장흥군 드림스타트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저소득 아동 18가정의 가족사진 촬영을 마치고 사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가정환경 조성으로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아동들의 성장 모습을 기록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사진 촬영은 지역 스튜디오에서

30%를 후원했다. 촬영에 참여한 한 가족은 “평소 다른 집에 가족사진이 걸려있는 것을 보며 늘 부러워만 했는데, 이렇게 가족사진을 찍게 되어 기쁘다”며, “사진 속 가족을 생각하며 어려운 일이 생겨도 힘내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가족의 의미를 되새



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빈부 격차로 인해 부족함을 느끼는 아이들 없이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잘 살펴 복지서비스를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강진군 군동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군동면과 강진군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간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과 홀몸 어르신 건강한 밥상 나눔 사업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현 군동면장, 강진군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임현옥 대표(룸비니어린이집 원장), 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윤호경 공동위원장, 강진군이장단 김은주 단장, 생활지원사, 반찬나눔 봉사단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연계’, ‘복지대상자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계·의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통합사례 추진’ 등이다. 군동면은 신규 특화사업인 ‘홀몸 어르신 건강한 밥상 나눔’ 사업을 강진군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 연계해 4월부터 매주 1회 진행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내륙의 바다 ‘장성호’



수변 데크길(왼쪽)



옐로우출렁다리



NEW
황금빛출렁다리



수변 데크길(오른쪽)

